「 제 2467 호 」

들빛

2025 사목교서 / ' 은총의 해 '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로마 5,17)

매포 성당
설 립 일. 1979. 3. 13.
주보성인. 노동자의 수호자 성 요셉

2024년 12월 8일

대림 제2주일
(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제1독서
바룩 5,1-9

제2독서
필리 1,4-6.8-11

복 음
루카 3,1-6

들빛 바로가기
www.wjcatholic.or.kr

화 답 송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발행 천주교 원주교구 발행인 조규만 전화 033-765-4227 팩스 033-765-4223 주소 원주시 원일로 28(인동) E-mail. wjhongbo@catholic.or.kr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고 은 락 베네딕토 신부 / 제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오늘은 인권 주일이다. 인권문제는 매 순간 인간사회 안에서 없어지지 않는 문제이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사회는 인권 보호라는 법을 통해 새로운 무기가 등장한 듯하다.

자녀가 부모님의 훈육을 듣기 싫어 정서적 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장애인 시설에서 거주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재하였다고 해서 생활교사를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신고하기도 한다. 또한, 거짓된 성추행 신고로 몇 년간을 고생하며 무죄를 입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직장 상사의 업무 지시가 마음에 안들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한 초등학교에서 특정 아이와 학부모로 인해 담임 선생님이 6번이나 바뀌고, 그로 인해 같은 반 아이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시위도 있었다.

이렇듯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들이 무기가 되어 또 다른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회교리에서는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기에 그 존엄성을 보호받아야 하며,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면서 존엄성과 권리에는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이 함께 지켜져야 한다고 한다.

의무와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리란 없다. 인간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는 의무와 책임도 져야 한다. 학생은 학생으로, 교사는 교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부모는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지었을 때 인권이 보장받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 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고 결정하면서 의무와 책임이 없는 권리가 등장하게 된 것 같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이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귀찮고 내 인권만 보장받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사회통합적인 사랑의 정신과 행위보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정 안에서 의무와 책임이 없는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닐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 서로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자신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의 굽은 길을 펴고 갈등과 분열의 거친 길을 평탄화하며, 자기중심적인 오만의 산을 깎아 낮추고 아집과 편견의 골짜기를 메워야 할 것이다. 조금만 더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해주고 보호해준다면, 그것이 더욱 합리적으로 자신의 인권을 지키는 모습일 것이며,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는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 본당을 소개합니다

매포 성당

“바람 부는 매포에는 인정 많고, 마음씨 고운 신자들이 많지요~!!”

매포 성당은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9길 32에 위치해 있으며, 노동자의 수호자 요셉 성인을 주보 성인으로 1979년 3월 13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관할 구역은 매포읍과 적성면 일부로 6구역으로 나눠지고, 석회암 지대로써 시멘트 공장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6쪽 마늘, 찰수수가 유명합니다.

1960년 10여 세대의 신자들을 중심으로 매포 공소가 시작되어 1969년 5월 1일자로 원주교구 소속이 되었습니다. 1972년 8월 13일 공소 강당을 완공하였으나 축복식을 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수몰되었고, 20여 세대의 신자들 가옥 또한 침수되었습니다.

정영환(바오로) 전교회장을 중심으로 강당 복구사업에 헌신하여 1973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시멘트 공장의 활성화로 1979년 3월 13일에 본당으로 승격, 3월 22일 초대 주임으로 이영섭(프란치스코) 신부가 부임하였고, 충주댐 수몰로 인하여 1982년 현재의 본당 소재지 매입하여 1983년 5월 11일에 제2대 김종인(마태오) 신부가 부임, 1984년 4월 3일 공사 착수, 10월 7일에 성당 완공, 10월 31일 축복식, 1985년 성모동산 조성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3대 이대식(야고보) 신부, 제4대 배달하(필립보) 신부, 제5대 백인현(안드레아) 신부, 제6대 고정배(요셉) 신부, 제7대 유영구(베드로) 신부, 제8대 김창수(안드레아) 신부, 제9대 최영균(그레고리오) 신부, 제10대 홍정호(야고보) 신부, 제11대 김정하(야누아리오) 신부, 제12대 이용진(가시미로) 신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매포 성당은 이용진 가시미로 신부님과 사도회장 김선일 네레오를 비롯하여 주일미사 인원 80여 명에 이르는 성당입니다. 이용진 가시미로 신부님은 2020년 9월 1일 부임하여, 오랜 숙원 사업이던 엘리베이터 대신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노약자·장애인용 리프트를 설치하였고, 성전과 교육관 그리고 사무실에 냉·난방기 설치와 성당 내 주차장 완비, 전기 배선 보수, 계단 비가림막 보수 등등 유지 보수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신자들과 마음을 모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80세를 넘으신 분들이 2층 성당까지 오르내리는 어려움은 꼭 해결해야만 하는, 어른들이 좀 더 수월하게 하느님을 뵐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그 어떤 다른 일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르신들은 직접 계단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다니십니다. 리프트 사용이 덜 되어도 뿌듯한 마음입니다. 그만큼 건강하시다는 증거일 테니까요. 이용진 가시미로 신부님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주고 사랑받는”**이라는 문장을 가장 많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주고 사랑받는 가장 소박하지만 진심인 **‘매포신앙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하십니다.

매포 성당은 주일마다 아미꾸스 차 나눔 봉사가 있습니다. ‘하하하’ 우선 웃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미꾸스 회원 자격은 60세 이하의 청년들이지만, 한번 가입되면 지속적으로 자격은 이어지며 지금 신부님까지 17명으로 구성된 청년단체입니다. 그럼요. 60세 이하면 청년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청년이고자 하신다면 두 팔 벌려 매포로 전입 오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아미꾸스 청년들은 주일마다 차 한잔 나눔으로 시작하여 초코파이, 과일, 찐빵 등으로 주일 마당을 풍성하게 채우고, 어른들이 후원해 주시는 사랑으로 **“기쁨주고 사랑받는”** 실천적인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 첫영성체 및 어린이 세례

▲ 청년 아미쿠스 성탄대축일 특송

요즘의 세상은 자기 좋은 것만을 추구하고, 나만의 즐거움들이 가득 차고 넘치는 시대이지만, 신앙생활이 주는 평안함과 따뜻함으로 가득한 매포 성당 마당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성지순례

2025년 정기 희년 전대사 수여 알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포하신 2025년 정기 희년 동안 다음과 같이 전대사가 수여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교황청 내사원 교령 참조)

다 음

☐ **희년 기간 :**
2024년 12월 24일 주님 성탄 대축일부터 ~ 2026년 1월 6일 주님 공현 대축일까지

☐ **수여 방식 :**
전대사의 통상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을 채우면서,
아래 가운데 하나를 실천한다.

1. 희년을 위한 거룩한 장소를 순례하여 미사에 참례하거나
말씀전례, 성무일도, 십자가의길, 묵주기도, 참회예식에 참여하기

2. 희년을 위한 거룩한 장소를 개인 또는 단체로 방문하여
성체조배, 묵상, 주님의 기도와 신앙고백(신경)을 바치며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간구하기

3. 하느님 자비를 입는 참회의 활동으로서

(1) **교회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중 선교, 영성 수련,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관한 교육에 참여하기

(2) **자선 실천** –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이들(병자, 수감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방문하기
– 그들을 위하여 육체적, 영적 자선 베풀기 (**「자비의 얼굴」** 15항 참조)

(3) **절제와 나눔** – 주중 하루만이라도 무익한 오락과 불필요한 소비를 삼가고 가난한 이들에게 기부하기
– 어려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자원봉사에 여가 시간을 할애하기

원동 주교좌성당

배론성지

풍수원성당

용소막성당

성내동성당

※ **원주교구 지정 순례지** : 원동 주교좌성당, 배론성지, 풍수원성당, 용소막성당, 성내동성당

※ **희년 개막미사** : 2024년 12월 29일 10:30, 원동 주교좌성당
폐막미사 : 2025년 12월 28일 10:30, 원동 주교좌성당

거동이 어려운 노인, 병자, 수감자나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 주님의 기도, 신앙고백(신경)과 그밖에 희년의 목적에 알맞은 기도를 바치며 자기 삶의 고통과 고난을 봉헌하기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1코린 12,19)

지난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3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목숨을 잃은 23명 가운데 18명은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일하며 꿈을 키웠지만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하였습니다.

수사 당국은 사고의 원인을,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생산 강행, 무자격 인력 공급 업체의 비숙련 노동자 투입, 급증한 불량률에 대한 무대책, 발열 전지의 선별 작업 중단 등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회사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구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또 파견된 노동자를 투입하고서도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참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힘들고 위험한 일을 파견, 또는 하청 업체 노동자에게 맡기는 그릇된 관행,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인간적 기업 경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가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인간의 존엄성과 안전을 무시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할 때, 위험한 일은 점차 더 힘없고, 더 가난한 노동자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안 화력 발전소의 김용균 노동자와 거제 조선소의 크레인 참사 노동자들, 그 밖에 수많은 산재 사망자도 위험 외주화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런데 자본이 이제는, 화성 아리셀 참사에서처럼 내국인 노동자보다 더 싸고, 책임 회피가 더 쉬운 ‘이주 노동자’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어, ‘위험의 이주화’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험한 일이 ‘더욱더 약한 노동자’에게 내려가는 이유는 이윤의 극대화를 최우선시하는 우리 사회의 탐욕 문화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 안에서는 인간의 존엄은 부정되고 가치 기준은 “효율성, 가능성, 유용성”(「생명의 복음」, 23항)으로 대체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배척되고 소외되며, 특히 힘없는 노동자는 “그냥 버리는 소모품”(「복음의 기쁨」, 53항)이 되어 버립니다. “일터의 안전을 비용”(프란치스코, 이탈리아 건설 협회 대표단에게 한 연설, 2022.1.20.)으로만 접근하고,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도 생산량과 이윤을 위하여 그 ‘죽음의 맷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죽음과 유가족의 슬픔을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거래로 생각하며, 이 또한 영업 손실로 결산합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는 사용하다가 버려도 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가 필요해서 ‘초대한 손님’이자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법과 제도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241항; 『간추린 사회 교리』, 298항 참조). 그들은 단순 노동력이 아니라 ‘인격체’이며, 우리 이웃이자 형제자매입니다(『두캣[DOCAT]』, 152항 참조). 그들은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1코린, 12,21) 하며 차별하고 배제할 수 없는, 결코 그렇게 하여서도 안 되는 ‘우리와 하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우리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아픈 것처럼, 그들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1코린 12,23-26 참조). “외국인, 내국인 따지지 말고 다 같은 인간입니다. 차별 없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봐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유가족의 절규는 우리의 절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지체가 건강할 때 몸은 건강합니다. 우리 사회의 한 지체인 이주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도 건강하지도 않다는 증거입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가장 약한 지체인 이주 노동자를 더욱 특별히 그리고 소중하게 안아 줄 때 우리 사회도, 우리 자신도 건강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제43회 인권 주일입니다. 세상과 이주 노동자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는 교회와 우리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입니다(사목 헌장, 1항 참조). 이번 인권 주일과 사회 교리 주간에는 특별히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러나 외면받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기억합시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사회적 참사와 구조적 불의에 무관심한 나머지 “이 모든 것이 마치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지 우리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복음의 기쁨」, 54항)하였던 우리 자신을 반성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향한 우리의 편견과 혐오 그리고 차별과 우월감을 던져 버리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마태 23,8)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진정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환대, 보호, 증진과 통합의 시간’(「모든 형제들」, 129항 참조)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아리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며,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고향을 떠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든 이주 노동자에게도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2024년 12월 8일 대림 제2주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 선 태** 주교

교구장 동정

12월 2일(월)~9일(월) 대품 피정 지도(기도학교)
12일(목) 사제서품식(배론성지)
15일(주일) 평협 정기총회(기도학교)

축하드립니다

수품일 12월 8일(주일) 주상현, 최진혁, 이종훈
심유섭, 이호용, 염제환, 박동규, 장형주
신현빈, 양종욱, 김나눔, 강형규 신부

기억해드립시다

선종 22주기
12월 12일(목)
조응환 타데오 신부

2024년 사제서품 [12월 12일(목) 14시 , 배론성지 대성당]

거룩한 사제로 불리움 받은 이들이 주님닮은 착한 목자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사제서품 전 9일기도에 함께해 주시길 청합니다.

「 서품 대상자 」

박진현 대철베드로(서원주)

원종권 핀따노(봉산동)

이륭 프란치스코(배론)

최현덕 요셉(구곡)

 # 서품 대상자 피정
– 12월 1일(주일) ~ 9일(월)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 사제 서품 전 9일기도
– 12월 3일(화) ~ 11일(수)

– 기도지향 –
. 12월 8일(일) : 예비 수도자들을 위하여
. 12월 9일(월) : 유학중인 사제·신학생들을 위하여
. 12월 10일(화) : 사제서품 대상자들의 가족을 위하여
. 12월 11일(수) : 사제서품 대상자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2025 배론성지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피정 일정 안내

◐ 신청형 피정 – 신청형 피정은 모두 선착순입니다.
▶ 피정비 2박3일 : 16만원(후원회원 8만원)
▶ 피정 신청 및 문의 043-651-4563
▶ 매일 11시 순례자 미사 (연중무휴)
▶ 자원봉사 후원회 모집 T.043-651-4564 M.010-7613-4564

2024년 12월 기획피정		12월 20일(금)~22일(주일) 이효성 리노 주교(수원교구)	
날짜	강사	날짜	강사
1월 17일(금)~19일(주일)	신우식 토마스 신부님, 원주교구	7월 18일(금)~20일(주일)	신호철 비오 주교님, 부산교구
2월 14일(금)~16일(주일)	김선태 사도요한 주교님, 전주교구	8월 22일(금)~24일(주일)	이주형 세례자요한 신부님, 서울대교구
3월 14일(금)~16일(주일)	서상범 티토 주교님, 군종교구	9월 19일(금)~21일(주일)	배영호 베드로 신부님, 수원교구
4월 17일(목)~20일(주일)	성주간 피정(3박4일), 기도학교	10월17일(금)~18일(주일)	신은근 바오로 신부님, 마산교구
5월 16일(금)~18일(주일)	전헌호 실베스테르 신부님, 대구대교구	11월14일(금)~16일(주일)	신현만 시몬 신부님, 원주교구
6월 20일(금)~22일(주일)	정남진 안드레아 신부님, 원주교구	12월19일(금)~21일(주일)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 원주교구

교구 알림

성서사십주간
비대면 : 12월 10일(화) 가톨릭센터(Zoom), 20시
대면 : 12월 10일(화) 태장동 성당, 10시
11일(수) 서부동 성당, 19시30분
12일(목) 횡성 성당, 20시
문의 : 복음화사목국 성서부 033-765-4226

교리신학원 재학생, 졸업생 만남의 날
때 : 12월 14일(토) 9시30분~15시
곳 : 가톨릭센터 마리아홀
대상 : 각 본당 교리신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준비물 : 미사도구, 필기도구, 개인 컵
문의 : 복음화사목국 033-765-4224

미사·피정·연수

이주민 미사 및 한글공부
때 : 12월 8일(주일) 12시 / 곳 : 가톨릭센터 200호
문의 : 보건·이주민사목 033-766-1267

성심회 미사
때 : 12월 10일(화) 18시30분 /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교정·경찰사목 033-766-1268

의료법인삼산의료재단 삼산병원
박상기(스테파노)
병원(관절/척추, 수술/비수술
무릎 줄기세포/인공관절,
내과/건강검진, MRI/CT/초음파)
T.033-749-9900 원주시 혁신로 5

연세치과
윤석현(요셉)
임플란트, 잇몸치료, 충치치료
예약상담 : 033-733-7505
원주원예농협 하나로마트 2층
마트주차장 무료이용

흙 표 흙 침 대 · 인 까 사
금성침대 · 양성국 갤러리
송영범(이시도로), 민병옥(수산나)
T.033-747-5757
만종가구단지 내

남부·밝은안과
박찬(루카),권혁연(프란치스코)
안종합검진, 노안, 사시 및 약시
안건조증, 눈물흘림, 눈꺼풀쳐짐
T.033-766-9100
남부시장 옆-세경아파트주차

출장부페, 이동밥차,
도시락, 답례품
IN & Party (인파티)
인치열(아우구스티노)
이효진(스테파니아)
T.010-8790-1309

크리스마스 여행사 성지순례
25년4월2일
조지아,아르메니아 순례 12일
25년5월2일
그리스,터키 순례 13일
권영욱(마티아) 010-5485-0114

안경매니져
오필상(방지거), 서난희(아녜스)
누진 다초점·하드렌즈 전문점
T.033-742-9901 행구동 SG 마트
T.033-742-9979 무실동 부영APT 후문

여민한의원
성태경(스테파노), 조성지(마리안나)
교통사고 / 추나요법 / 봉독약침
T.033-766-1075
봉산동 삼익아파트 맞은편 1층

정관장(홍삼) 단구점
송봉순(안젤라)
T.033-762-2305
단구동 롯데시네마 · 우리은행 옆

경성재가복지센터
남명숙(진이아가다)
어르신을 안전하게 돌봐드립니다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T.033-765-0255 · 763-0251
www.경성.kr, 관설 근린공원 인근

성 골롬반 외방선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때 : 12월 11일(수) 14시
곳 : 원동 성당 만남의방

가톨릭 제약인회 미사
때 : 12월 11일(수) 18시30분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보건·이주민사목 033-766-1267

보건사목봉사자 성탄행사
때 : 12월 12일(목) /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보건·이주민사목 033-766-1267

성체조배회 월례미사 및 성체조배
때 : 12월 12일(목) 10시 /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가정사목국 033-765-4225

교구 카나혼인강좌
때 : 12월 14일(토) 10시
곳 : 가톨릭센터 2층 강의실
접수 : 홈페이지 신청(당일접수 불가)
교육비 : 1쌍 40,000원
문의 : 가정사목국 033-765-4225

하반기 원가대연 대표단 모임
때 : 12월 14일(토) 11시~15시
곳 : 가톨릭 원주도서관
문의 : 청년·대학사목 033-766-4228

성서부 탈출기 연수
때,곳 : 12월 14일(토) 14시30분, 가톨릭센터 202호
때,곳 : 12월 15일(주일) 10시, 가톨릭센터 202호
문의 : 복음화사목국 성서부 033-765-4226

제 56차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총회
때 : 12월 14일(토) 15시~15일(주일) 12시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대상 : 각본당 사도회장, 여성부회장,
재정 부장 등 3명 이내 교구 제단체 2명 이내
준비물 : 미사준비, 세면도구, 개인컵
문의 : 010-3223-2475

민족화해위원회 위원모임 및 평화기원 미사
때 : 12월 15일(주일) 18시30분 / 곳 : 명륜동성당
문의 : 명륜동성당 033-762-2512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열두 소예언서 II
: 12.20(금)~22(일)
성경완독 : 25년 1.2(목)~10(금), 2.14(금)~22(토)
문의 : 횡성 도미니코피정의집 010-3340-0201

채용 ·모집·기타

일본 가고시마교구 주관 성지순례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도쿄, 오사카 3박4일
문의 : 담당신부 010-3645-9028

향심기도 모임 안내
때 : 매주 목요일 14시~16시 / 곳 : 봉산동성당
대상 : 향심기도 교육을 받은 분
누구든지 처음 오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문의 : 원주교구 향심기도회 010-7278-9894

바오로딸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과정 :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원서 : https://uus.pauline.or.kr / 1.31. 마감
문의 : 02-944-0819~23, 010-5584-8945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 / 1월 개강, 각 6-8주
-문화유산으로 보는 교회사(중세), 이진현 신부
-고대 그리스의 시간과 그리스도교 신학. 김민철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 모세의 삶과 신앙, 주원준 박사
-구약으로 만나는 하느님의 여러 얼굴들, 김민 신부
-영성과 심리의 통합 세 번째 길. 최지원 수녀
-명화로 만나는 그리스도교 영성, 박혜원 강사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신청 :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 운전기사회는 가족, 단체, 골프 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 차량, 호텔, 팬션 예약 가능
문의 : 064-758-6476, 010-4566-6476

관설동 성당 사제관 축성식

- 일시 : 12월 18일(수) 11시30분
- 장소 : 관설동 성당

도움이 필요합니다 / 아픈 지구를 살리는 일, 함께해 주세요.

노숙인자활시설 「최양업토마스의집·십시일반」은 건강보험과 함께 **투명 PET병** 모으기 환경보호 캠페인 "다시 하늘반창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아진 투명 PET병의 수거는 입소 **노숙인이 직업훈련**으로 참여합니다. 지구를 위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일에 함께해 주세요.

*** 참여 방법과 문의 ***

1. 투명 PET병 모으기 참여
2. 노숙인 수거활동비 후원하기 참여

※ 자세한 내용은 아래 QR코드를 활용해 주세요.
일시후원 계좌 : 농협 307125-55-000828
■ http://wjhc.or.kr ■ 033-746-1206 ■ wjhomelss@naver.com

RE: 다시 하늘반창고
GUIDE SITE

본 캠페인은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의 친환경 캠페인
"슬기로운 지구생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 세법 개정에 따른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25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품) 부터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1. 25년도분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고자 하시는 분은 "간소화서비스 제공동의서"를 본당 사무실에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신 분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 합니다.
2. 25년도분을 26년도에 자녀들의 이름으로 변경 요청하시는 경우에도 정부 세법 개정에 따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익명으로 납입 처리된 25년도분은 25년도 12월 31일까지만 정정이 가능)
3. 본당에서는 25년도분 기부금 영수증의 수기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025년 '들빛' 주보 상호광고 모집

광고기간 : 2025년 1월~12월(1년. 격주게재)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필수), 광고신청서
접수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후 메일접수
(www.wjcatholic.or.kr→자료실→교구자료실)
메일 : wjhongbo@catholic.or.kr
문의 : 교구청 홍보부 033-765-4227

연세민내과 의원
염동호(가브리엘), 민미심(엘리사벳)
국가암검진지정기관(위암 유방암대장암간암)
24시간 심전도검사 면역NK세포검사
간섬유화검사(국가예방접종 위탁기관)
T.033-733-7582(중앙로86)
8시부터 검진 실시

친환경 원목가구 다심마루
최인숙(마리아)
좌탁, 서랍장, 소파, 문갑, 식탁, 침대
황토석온열침대 온열소파
T.033-761-4994
관설KT정문 맞은편

착한시공하우징
백정현(임마누엘)
김진숙(클라우디아)
신축 / 각종 리모델링
전기조명 / 생활소품 일체
T.010-7384-0010 카드결제 가능

밝음신협
故지학순주교님 도움으로 시작됨
예탁금, 적금대출상담, 카드단말기공제
(보험)온누리상품권
본점:033-745-4571 단관:764-4575
무실:033-748-6900 혁신:735-4575

변호사 최윤환 법률사무소
최윤환(암브로시오), 신주연(글라라)
민사 · 형사 · 가사 · 파산 및 회생
T.033-747-8872
무실동 신법원청사 옆

성가정 요양원(문막)
지석근(마르코)
성가정 요양원 입소어르신 모집(남.여)
어르신을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도 상담해 드립니다.
T.033-732-7689, 010-3365-7689

에이스침대 원주 스퀘어 자코모 소파
원이규(토마스), 권미향(스콜라스티카)
T.033-743-9700
원주시 북원로 2362(단계동 하이마트 사거리)

명성인쇄 · 광고
최경택(요아킴). 이안나(안나)
칼라인쇄 · 책자 · 봉투 · 기념품
광고 · 판촉물 · 팜플렛 · 카렌다
T.033-747-0373 교구청 뒤 중앙로24

세무사 이해경 사무소
이해경(도마), 박영선(리디아)
기장대행·세금신고·이의신청
교구신자 무료 세무상담
T.033-743-0126 원주세무서 뒤